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참고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3.1.17.(화) 조간	배포	2023.1.16.(월)		
담당부서	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	책임자	팀 장	손인수	(02-3145-519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동식	(02-3145-5193)

## [금융꿀팁 200선] <140>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- 동시에 '16.9.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140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

### < “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 핵심포인트 >

-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,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.
-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,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.
- 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, 자신의 투자 성향·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,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(국세청 “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”)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.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-⑭⑩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사 례 및 꿀 팁	<div data-bbox="331 405 1410 629"> <p>■ <b>(사례1)</b>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<b>퇴직연금</b>(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)과 '14년초에 가입한 <b>연금저축</b>을 통해 연금을 <b>매월 120만원씩</b>(연간 1,440만원) 받도록 계획하였는데,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</p> </div> <p><b>1 연간 연금수령액을 1,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.</b></p> <p>본인이 납입한 <b>퇴직연금</b> 및 <b>연금저축</b>에서 <b>세액공제</b>를 받은 금액과 그 <b>운용수익</b> 등을 <b>재원</b>으로 받는 <b>연금소득</b>에 대해서는          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<b>종합과세</b>(6.6%~49.5%) 또는          ②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<b>분리과세</b>를 <b>선택*</b>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 '23.1.1.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, '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(6.6%~49.5%)</p> <p>다만, <b>분리과세 세율</b>은 <b>연간 연금수령액 규모</b>에 따라 달라지는데, <b>연간 연금수령액*</b>이 <b>1,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</b>(1,200만원 초과액이 아님)에 대해 <b>16.5%</b>, <b>1,200만원 이하</b>이면 <b>3.3%~5.5%</b>로, <b>1,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</b>됩니다.</p> <p>*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,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, '00.12월 이전 가입한 (구)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퇴직연금(본인추가납입액)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,200만원 여부 판단시 제외</p> <p>따라서, <b>저율의 연금소득세</b>(3.3%~5.5%)로 <b>분리과세</b>가 가능하도록 <b>연금수령기간</b> 등을 <b>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</b>하는 것이 <b>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</b>합니다.</p>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사 례 및 꿀 팁	<div data-bbox="319 280 1420 504"> <p>■ <b>(사례2)</b>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,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</p> </div> <div data-bbox="311 548 1428 660"> <p>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,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.</p> </div> <div data-bbox="319 683 1428 907"> <p>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, 연금수령시 나이*가 55세 이상~70세 미만이면 5.5%, 70세 이상~80세 미만이면 4.4%, 80세 이상이면 3.3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.</p> </div> <div data-bbox="319 929 1428 1019"> <p>*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※ (종신연금 연금소득세) 55세 이상~80세 미만 : 4.4%, 80세 이상 3.3%</p> </div> <div data-bbox="319 1041 1428 1332"> <p>예를 들어,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,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.5만원인 반면,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,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.5만원(=522.5만원-440만원)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.</p> </div> <div data-bbox="319 1355 1428 1825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(사례) &gt;</p> <p>The diagram illustrates the tax savings from delaying the start of pension payments. It shows two scenarios based on the age at which payments begin (연령)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Scenario 1 (Starting at 55):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ge 55-64 (10 years): 5.5% rate. Tax: <math>500 \text{ million} \times 10 \text{ years} \times 5.5\% = 412.5 \text{ million KRW}</math></li> <li>Age 65-69 (5 years): 4.4% rate. Tax: <math>500 \text{ million} \times 5 \text{ years} \times 4.4\% = 110 \text{ million KRW}</math></li> <li><b>Total Tax: 522.5 million KRW</b></li> </ul> </li> <li><b>Scenario 2 (Starting at 65):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ge 65-69 (5 years): 5.5% rate. Tax: <math>500 \text{ million} \times 5 \text{ years} \times 5.5\% = 137.5 \text{ million KRW}</math></li> <li>Age 70-79 (10 years): 4.4% rate. Tax: <math>500 \text{ million} \times 10 \text{ years} \times 4.4\% = 220 \text{ million KRW}</math></li> <li>Age 80-84 (5 years): 3.3% rate. Tax: <math>500 \text{ million} \times 5 \text{ years} \times 3.3\% = 82.5 \text{ million KRW}</math></li> <li><b>Total Tax: 440 million KRW</b></li> </ul> </li> </ul> <p>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enarios is <b>82.5 million KRW</b>, which is the amount saved by delaying the start age from 55 to 65.</p> </div> <div data-bbox="319 1859 1428 2027"> <p>따라서,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,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</p> </div>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																
사 례  및  꿀 팁	<div> <div> <div>■ (사례3) 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,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 중</div> 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, 자신의 투자 성향·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,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, 신탁계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※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비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,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아울러,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*하시기 바랍니다.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*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,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자변경 불가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※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, 확정연금,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, 신탁계약은 정기연금(기간지정형, 금액지정형),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됨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,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, 자신의 투자 성향·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*할 필요가 있습니다.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*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, 신탁계약은 은행·증권사 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</div> </div>																
	<div> <div>&lt;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연금지급방식 비교 &gt;</div> <table> <tr> <th colspan="2">보험계약</th><th colspan="2">신탁계약</th></tr> <tr> <td>종신연금</td><td>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</td><td>정기연금</td><td>기간지정형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</td></tr> <tr> <td>확정연금</td><td>5년,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</td><td>금액지정형</td><td>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</td></tr> <tr> <td>상속연금</td><td>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·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 보험금·해약환급금으로 지급</td><td>비정기연금</td><td>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</td></tr> </table> </div>	보험계약		신탁계약		종신연금	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	정기연금	기간지정형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	확정연금	5년,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	금액지정형	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	상속연금	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·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 보험금·해약환급금으로 지급	비정기연금	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
보험계약		신탁계약															
종신연금	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	정기연금	기간지정형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														
확정연금	5년,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	금액지정형	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														
상속연금	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·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 보험금·해약환급금으로 지급	비정기연금	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														

제 목	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사 례 및 꿀 팁	<div data-bbox="312 311 1423 497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■ <b>(사례4)</b> D씨는 A,B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,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,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함</p> </div> <p><b>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,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(국세청 “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”)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.</b></p> <p>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)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,800만원인 반면,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*에 불과하므로,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,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</p> <p>* 연간 700만원(연금저축 300~400만원 포함)을 한도로 16.5%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또는 13.2%(총급여 5,500만원 초과) 세액공제          ※ '23.1.1.부터는 연간 900만원(연금저축 600만원 포함)을 한도로 세액공제</p> <p>다만,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(원천징수의무자)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,</p> <p>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“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”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,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)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</p>

## 제 목

##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
### < “홈택스”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 >

#### 1. 국세청(홈택스) 홈페이지 < 민원증명 >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

#### 2. 기본 인적사항, 신청내용, 수령방법 선택 후 “신청하기” 버튼 클릭

## 사 례 및 꿀 팁

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·설명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연금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고,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